



소 감 문 1

<나의 가족, 나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세계한인 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생생한 영상을 통해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국에 대한 애뜻함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뿌리찾기 지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많은 입양기관의 기록을 취합하고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수많은 입양인들에게 영구적으로 전해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작년 2020 온라인 게더링 행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의 소감을 들으니, 그분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는 시도하기 정말 힘든 일인데,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로도 입양인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줄 것 같다는 생각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러한 입양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지원된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큰 기대없이 뿌리찾기를 시작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분들이 더욱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족을 찾고 나서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등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입양에 대한 국내의 인식도 더욱 긍정적으로 개선되어 앞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에 모래아트와 함께 덩덩하게 풀어내는 이야기를 보니 마음이 멍멍해졌습니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 속에서도 항상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고아원을 전전하셨던 분이 행복한 입양 경험을 통해 MPAK라는 입양인 지원단체에 몸담으시고, 자신이 받은 행복을 다시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행복한 입양 경험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 그분들이 또 순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지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거주 입양인들에게 구급상자 제공, 단기체류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졌는데, 저포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물심양면적인 도움이 보태진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이 행사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입양인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인에 대해

2021 The World Korean Adoptee's Online Gathering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큰 관심이 없던 저에게도 입양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막막할 무연고 입양인들이 여러 단체의 따뜻한 도움을 통해 하루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분들이 모두 원하는 바를 얻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소 감 문 2

저는 '입양'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된 이유는 앞선 신애라&차인표 부부의 공개입양이 어릴 때 되게 강렬하게 다가 왔으며 박시은&진태현 부부의 성인 입양 을 보면서 새로운 가족형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그 뒤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입양문제와 그 후 입양인의 입장이 궁금해져서 이 세계 한인 입양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구나를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자신이 살던 곳에 적응한 입양자들은 오히려 입양자 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존재 의의를 발견하기 위한 뿌리를 찾는 여정으로 많은 입양자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리 라는 것이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뿌리 찾기를 하면서 가족 찾기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족 찾기가 양면성이 있다는건 처음 알았던 현실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막연하게 가족을 찾는 사례는 감동적인 사례를 세상으로 꺼낼 때가 많고 가족을 찾게 된 건운이 좋은 행운아 이거나 자신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완전 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가족 찾기를 통해 이것이 나라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거부당했을 때의 슬픈 감정들을 받아 들이고 마음의 준비 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나였다면, 나는 이런 거부를 당했을 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해보니 입양자들이 자신에 대한 뿌릴 찾는다는 것부터가 정말 큰 용기 구나라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삶에 살아갔을 때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벽 같은 존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 또한 새로운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소 감 문 3

먼저 세계한인 입양인 온라인 게더링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를 통해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보통 뿌리찾기라는 것이 그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의 따뜻함을 더하시겠지요.
드라마 등 각종 영상들을 접하다보면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자료가 유실되어 가족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또 이 입양기관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
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전세계에 계신 분들이 국내의 기관에 연락을 취하려면 언어 장벽의 문제가 클 것 같
은데요.
다양한 언어적 도움을 주시는 능력자 분들이 계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국에 가서 행복한 기억도 많으시겠지만 분명 힘든 기억도 많으실 테지요.
인종차별 문제부터 왠지 모르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어 괴로울 때도 있으실테구요.
입양인분들끼리 활발히 모임을 가지며 고민도 나누시면서 큰 위안을 주고받으실 것 같습니
다.
또 한국으로 돌아오신 입양인분들도 다시 적응하기에 힘든 점이 많으실텐데 많은 단체의 도
움을 받으실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나서고 싶
네요~
국내에도 많은 입양인 지원 단체가 있던데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살다보면 고향집도 자주 내려가지 못해 항상 애절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 수만리 떨어진 곳
에서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리움의 상대가 미상이라면 그리움은 배가 되겠지요.
가족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 그리움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아요.

2021 The World Korean Adoptee's Online Gathering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많은 분들이 뿌리를 찾아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소 감 문 4

살면서 단 한 번도 입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입양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양아에 관한 정보가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서류들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하나의 아카이브에 정보를 저장하면 효율성이 올라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부모를 찾았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고 이야기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상담 후에 뿌리찾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뿌리찾기를 하기 전에 입양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좌절과 분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더 아프고 쉽사리 회복할 수 없을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어릴 때부터 그 나라의 사람으로 컸고, 사고방식부터 생활방식까지 모두 해당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주요 사회원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오는 박탈감은 상당했겠지요. 그러다가 뿌리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 기대를 품고 온 한국에서 문화적 차이의 문제점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융화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들은 더 적응하기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NCRC를 비롯한 기관들이 워크샵 등을 통해 노력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카라보스씨의 이야기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털어버린 그녀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a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 감 문 5

평소에 '입양'과 '다양한 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사이트는 잘 몰랐다. 이런 기회를 통해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영상과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정부 관계자, 홍보대사, 입양된 분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연대와 단결,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직접 만남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온라인 게더링을 통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영상에서, 한 사람이 용기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간절하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고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한 인간으로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가장 인상깊었던 대목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Damieng의 "뿌리찾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뿌리찾기에 도전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저렸다. 빠른 시일내에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인해 뿌리찾기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길 기원해본다. 이 유튜브 사이트가 많이 홍보되면 좋겠다.

이 영상을 다 보고나니, 예전에 미국에 살때 만났던 아이가 생각이 났다. 그 아이는 동생 친구인 James였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였다. James의 부모님은 자신의 한국인 입양아인 아들을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기를 희망했다. 아무래도 본인 아들이 태어난 나라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뿌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원했던것 같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그 아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소 감 문 6

※ 글씨체, 글씨 크기 자유롭게 250단어(공백 포함) 내로 작성해주세요.

지난 10일, 저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이라는 행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2년간 COVID-19와 수험생활 때문에 외출을 지양하는 편인데,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열리는지 잘 알지못해서 영상 시청에 앞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벤트 관련 포스트만 있고, 다른 정보글들은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개최된다면 홍보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샌드아트 영상을 제일 재미있게 봤습니다. 직관적이고 따뜻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샌드아트 기법에 의해 표현되어 차분하고도 안정감 있는, 행사의 취지에 알맞은 영상물을 감상했습니다. 온라인 게더링 영상에서 진행도 매끄러워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그 전에는 한인입양인의 소식이 이슈가 되면 알게되는, 수동적인 정보습득자였는데 이제는 한인입양인들의 사연을 찾아보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더링을 통해 세계 각지의 한인입양인들이 잘 지내고 있고, 한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사는, 혹은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나 국내 취업 문제, 각종 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뭔가 벅차오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들로 이 행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식들을 유튜브나 구글, 혹은 네이버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에서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최 프로그램인데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좁은 시야가 한단계 더 트인 거 같습니다.



소 감 문 7

예전에 우연히 우리나라가 꽤 많은 입양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최근에도 그 수가 많은 편이었던 것에 조금 놀랐지만 그뿐, 이후로는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202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행사를 알게되어 영상을 시청했다.

뿌리를 찾는 것,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 낳아주신 부모님과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꼭 살고 있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하는 분들처럼 자라는 내내 자신이 주변과는 다른 모습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품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입양인 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한인 입양인들도 모두 친부모를 궁금해하고,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짝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받은 점도 담담하게 전달하는 모습이였다. 과거 어려운 시기였을 때라면 모를까 이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 아이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입양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을 생각해보면, 친부모를 찾는 일이 꼭 기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단점마저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멋있고,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한글 이름을 지어주고, 한국의 문화를 알려준다는 사연도 왠지 모르게 감동적이였다.

해외 각국에 한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여러 단체가 있다는 사실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간절하게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 분들에게 언젠가는 꼭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이분들의 사연을 살짝 엿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나는 좋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 다음번엔 그럴 수 있기를.



소 감 문 8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중요한 고민이다. 이번 “2021 세계 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입양인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김연수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에서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주인공 ‘카밀라’ 역시 자신의 과거와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다. 카밀라가 찾은 진실은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끝내 카밀라는 과거 부모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도 찾게 된다.

이번 온라인 게더링에서 수많은 ‘카밀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해외에 입양된 입장이라면 과연 내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싶다. 게더링에서 공유해주신 것처럼, 분노나 혼란과 같은 다양한 감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거부당했다는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뿌리찾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과거를 이해하려는 욕구 역시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

동시에, 뿌리찾기를 시도한 여러 입양인 분들이 굉장히 용기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했다. 모국과 친부모를 원망하며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아픈 과거에 먼저 다가가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꾸려 가려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서 내내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입양을 앞둔 부부의 고민에 입양인이 답을 해주는 영상을 봤었는데, 그때 입양인 분께서 ‘입양은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것’이라는 말을 하셨던 것이 떠오른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자기 정체화를 할 수 있듯이, 자아 정체성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뿌리찾기를 통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 끝은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수용이길 바라며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을 가슴 깊이 응원하고 싶다.

2021 The World Korean Adoptee's Online Gathering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또, 개인 혼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을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참 의미 있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입양인들에게 제도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더 열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내외 입양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소 감 문 9

※ 글씨체, 글씨 크기 자유롭게 250단어(공백 포함) 내로 작성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행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놀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입양인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입양인분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잊고 싶은 존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를 버린 나라, 이제 상관 없는 나라..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상에서 입양인 분들이 본인의 사연을 이야기 해주던 내용에서

엄마가 딸을 가족에게 제대로 소개 못하고 지인으로 이야기 했던 일이나

제대로 마음의 준비가 안되고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찾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 가족을 찾았는데 좋은 점도 있었고 안좋은 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이해가 되서 저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방문하셨던 분이, 복지원을 방문했던 순간,

기대가 컸다가 실망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구요

그때 조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대로, 한국이 그냥 단순한 모국이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려 하는 입양인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본인의 뿌리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감사 드립니다.



소 감 문 1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티입니다.

저는 온라인 게더링을 위해 셀프캠 비디오를 제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회차를 중간에 보고 2회차도 다시 봤기 때문에 결국 2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양인을 염두에 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온라인 게더링을 더 많이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Goal의 비디오 촬영 요청이 없었다면 온라인 게더링이 개최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
다. 시간과 링크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입양인 그룹이 많이
있으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온라인 게더링의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있습
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그룹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입양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럽 입양인과 미국 입양인들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비디오를 활용하여 토론을 진행한다면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좌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회의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기에 입양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싶
습니다. ICAA가 주최하는 대규모 회의가 있는데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입양인의 관점과 참여
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입양인들의 발언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온라인 게더링이 좋은 취지이고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문 1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행사는 입양가정의 보살핌과 입양아들의 삶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모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피력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꼭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님의 인사말처럼 성장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무연고 입양인으로서의 마음을 다독이고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한인입양인들에게 아주 작지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작년도 참가자의 소감 중에, 혼자 애쓰며 길이 보이지 않은 듯했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이 기록과 인프라를 통해 가족찾기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뿌리찾기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했다. 그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한 참가자의 소감 발표는 이 행사의 당위성을 더 확고히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뻐던 부분은 프랑스의 Celine이 8년 전에 생모를 찾고 이제는 친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정말로 한국의 문화와 프랑스의 문화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마치고 심적으로 정착한 것같아 그녀에게 큰 박수를 화면 너머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궁금하기도, 궁금하지 않기도 하다는 샌드 애니메이션을 보며 살짝 눈물이 났다. 그만큼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고,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간신히 생모, 생부를 찾았어도 그들과 가족으로서 쌓아가기에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가는 과정이고, 계속되어야 할 과정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용기를 내고 한 발을 내딛는 화면 너머의 입양아들을 위해 나 역시 관심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겠다.

탤런트 신애라씨가 두 딸의 입양 사실에 대해 TV에서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책을 써서 널리 알리는 귀감이 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을 통해 뿌리를 찾고자 하는 입양아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와 같은 행사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 행사 영상이 좀 더 널리 퍼져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모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소 감 문 12

※ 글씨체, 글씨 크기 자유롭게 250단어(공백 포함) 내로 작성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한인 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영상 잘 보았습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입양기관의 기록에 대한 정리입니다.

예전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데서 보면 해외로 입양 갔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하시는데,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이 없어지거나, 관련 서류가 없어지거나 해서 허탈해 하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 기록들을 디지털화 하고, 없어지는 기관의 서류를 받아오시는 걸 보고..

흔한 말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모습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모국인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생일이 몇일인지..등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흔적, 삶의 조각이 어땠는지를 찾아보는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해봤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감 문 13

※ 글씨체, 글씨 크기 자유롭게 250단어(공백 포함) 내로 작성해주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참가자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입양되어 얼굴도 생김새도 다른 이방 나라에 갔지만, 핏줄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뿌리 찾기 참가자들의 후기부터, 후원 기관 소개, 그리고 영상 게더링을 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간접경험해서 좋았다. 그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권익 보호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모국 방문이 어려워진 터라 참 아쉬웠다. 나의 성장과 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가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고 언젠가는 다들 고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애라 홍보대사님의 출연도 참 반가웠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알게되었다. 입양기록에 대한 정보 보관, 기록물들의 디지털화로 영구보존된다고 하니, 더 좋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서 뿌리를 찾고 가족을 찾는 데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뿌리찾기 경험자들이 영상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텐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해주었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품질의 서비스들이 제공될 때, 가족 찾기를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뿌리 찾기에 대한 열정을 깨워주고 그들의 유산 중 일부인 한국에 방문하여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궁금한 마음도 있고, 궁금하지 않은 마음도 있을 테지만,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도 다르게 생긴 사람들 사이에서 힘차게 발을 내딛기를 응원한다.



소 감 문 14

202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영상을 보고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슬픈 일들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전쟁고아가 생기면서 그 시절부터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입양아를 끌어안아야 하지 않을까?

양부모를 잘 만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못된 양부모를 만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지를 못하면 대한민국으로 추방하여 다시 돌아오는 예도 있다.

어려서 입양을 가게 되면 사고방식은 외국 사람의 심리가 되지만, 겉모습은 아시아인이다.

추방당하고 제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머리는 외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정서를 배우려면 또 다른 힘듦이 기다리고 있다.

양부모를 잘 만나서 고등교육을 배워 전문직을 얻어 멋진 인생을 사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성적인 학대를 종종 당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다.

세계한인 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영상을 보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와 부모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다. 국가 차원에서 입양인들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뿌리를 찾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입양아들이 유엔이나 국제 관련 기구에 많이 입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를 한다. 해외입양아들을 조국이 끌어안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가 못하면 종교단체라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외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다. 한인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외교적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나는 "세계는 민정이 놀이터" 행복강연가가 되어 딸 민정리와 함께 해외입양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 민정리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심장병이 4개나 있었다. 그로 인한 고열로 뇌 손상을 입어 잘 걸을 수도 없고, 말을 잘할 수도 없고, 잘 볼 수도 없는 상태였으나 지금은 스스로



보행이 조금씩 되고, 조금씩 볼 수도 있고, 조금씩 웅얼웅얼 소리도 낸다.

딸을 키운 16년의 양육 세월은 40년간은 세월이었다. 해외입양아들이 겪는 고통과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삶의 고뇌는 다 비슷비슷할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다.

부모들이 해외입양 보내는 심정이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다. 그것을 알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하튼 정부는 이제 해외입양아 통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들의 뿌리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더 가슴 아픈 해외입양아가 나오지 않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소 감 문 15

안녕하세요.

2021 한인 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잘 보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세계에 흩어진 한인 입양인들이 1년에 한번 한국에 와서 자신의 뿌리를, 고향을, 가족을 찾는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되는구나...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보니 그 분들에게는 '게더링', '입양인 게더링'이 중요한 의미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먼 이국에서 한국에 오는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경비도 그렇고, 한국에 왔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언어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텐데...

평소에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본인의 뿌리를 찾는 행동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행동 하나 하나는 입양인 분들이 각자 하는 것이지, 입양인 '분'들이 함께 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온라인 미팅으로 모여서...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 해주고 나누는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직접 한국에 온 것만큼 소중한 순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를 찾기 전에 고민을 더 해야 한다거나, 만나게 된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등은

미리 경험하기도 힘들고, 미리 알지 못한채 맞닥뜨렸다면 안좋을 수도 있는 일인데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입양인 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을 것 같네요

코로나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굳이 '온라인 게더링'을 한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짧게, 그리고 몇 명 안모이셨지만...실제로는 더 길게/많은 분들이 모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감 문 16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을 함께 하고 있으니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을 통해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 자체가 보통의 우리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그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로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 다니며 기대감을 갖고 막상 알아보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을 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던.....

이렇게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가 세계에서 각자 생활하는 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을 깨닫게 해줍니다. 문득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세계에서 해외입양아 수출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해외로 입양되었던 분들께 미안해집니다.

그리고보면 아동권리 보장원의 해외입양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더링으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더함으로써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나의가족, 나의성장'

자신의 삶을 덤덤하게 풀어놓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며 그 분들의 웃음이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남부의 작은 마을에 입양되었던 리디야,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제시 진주 해일, 리옹에 살고 있는 마이클, 프랑스로 입양되었다가 집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셀린.....

입양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도 무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입양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꼭 필요한 입양. 그 입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양정보의 보관,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친가족을 찾으려고 할 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또 한가지 해외입양아들끼리 만나는 기회를 통해 서로 힘이 되어주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외입양 되었다가 자신의 존재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우리들이 언제나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께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 감 문 17

아동권리보장원은 요즘 사회에서 민식이법, 잼민이, 노키즈존처럼 아이러니하게 점점 좁혀져 가는 아동의 범위에 대해서 항변하고 고민하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관이기에 내 관심 안에 있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녹화된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행사 영상을 보며 몇 번을 눈물지었는지 모른다. 나는 Denis Carre 채완 씨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다. 뿌리를 찾을 때, 입양 전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때 허전함 같은 기분을 느끼는 지 다른 입양인들에게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데니스가 품고 있던 그 허전함이 내 마음 속 빈 구멍에 스산하게 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옆에 있다면 토닥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질문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 자리에 모인 열 일곱 명의 같은 입양아들이 공감하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Jessye 진주 Hale은 데니스의 말에, 자신은 한국 첫 여행 당시 들렸던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입양보내기 전 미혼모들의 경험을 들으며 함께 울며 유대감을 느꼈다고 말해주었다. 자신을 입양 보내기까지의 생모의 마음이 어땠을 지 그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는 Jessye의 말에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이 행사의 의의가 내 마음에도 전해졌다. 갓 태어난 딸의 출생시각부터 몸무게까지 하나하나 기억하고자 하는 자신을 보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정확한 출신, 생일, 태어난 시각 등의 소소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는 데니스의 말에 부디 그의 허전함이 딸의 탄생의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이 채워 지기를 기도했다.

생후 3개월 때 입양되어 프랑스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Lydia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찾으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를 포함한, 해외 입양아들이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그리고 잠시 뿌리를 자각할 때 자랑스럽고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의미 있는 행사를 열어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작은 마이크를 허락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린다.



소 감 문 18

202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행사를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신애라 홍보대사의 따뜻한 인삿말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나마 참석하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인지원서비스는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 관련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영구 보존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으며,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놓였습니다.

많은 입양인들에게 뿌리를 찾고 가족을 찾는 일, 그리고 찾아주는 일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알려주신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욱 많은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입양가족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런 온라인 게더링 행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어디서 왔는지 뿌리가 어디인지 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외 입양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좋은 의식을 가지고 퍼트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전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야겠습니다. 샌드아트 영상을 통해 한 입양아의 스토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주어야 겠습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하루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함은 너무 당연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발걸음. 그 작은 발걸음이 시작이 되겠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크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인 지원단체를 알게되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많은 입양인들 입양인 가족들이 힘이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힘이 되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모두 관심과 귀를 기울인다면 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를 그리고 가족을 찾는 입양인들에게 좋은 결과가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행사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소 감 문 19

※ 글씨체, 글씨 크기 자유롭게 250단어(공백 포함) 내로 작성해주세요.

많은 입양자들이 자신의 뿌리찾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찾지 못할 때 심각한 절망감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삶이 망가질 정도로 많은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나니 입양자들에게 뿌리찾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본인의 정체성, 가족, 고국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입양 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가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양자들이 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관과 제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 입양자가 있다면 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양자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인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입양인들이 본인의 입양을 밝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입양인들을 돕는 여러 기관, 행사, 연대가 있고 현재도 입양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과 가족들이 현재도 그리울 것입니다. 부디 무연고 입양인들이 고국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 감 문 20

202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 행사는 '나의 가족, 나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을 통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입양인에게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미래에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입양을 생각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입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인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는 부분 역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가게 되면 모국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입양인들이 모국, 뿌리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사실 영상 속의 입양인들은 현재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다른 생활을 하며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도 없고 한국어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자 노력하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또 실제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보다 외국에서 훌륭한 부모님께 입양되어 지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입양되어 인종차별을 겪거나, 병원에서 병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입양인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는 부분을 보고 내 생각이 짧고 시야가 좁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인이 본인의 뿌리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제도가 더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서 모두 같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친부모가 있고, 완전히 관계가 끊긴 상황이 아니라서 친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났겠지만, 그 당시에 어린 아이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세계한인입양 온라인 게더링 행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입양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감 문 21

※ 글씨체, 글씨 크기 자유롭게 250단어(공백 포함) 내로 작성해주세요.

202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을 보고 영화 '트윈스터즈'를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트윈스터즈'는 다른 나라로 각각 입양된 한인 쌍둥이가 sns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한국으로 와서 엄마도 찾고 추억을 쌓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쌍둥이라서 그 영화를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트윈스터즈에서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입양관리 조직의 중요성을 느꼈었는데, 2021 세계한인입양인 온라인 게더링에서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뿌리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입양인들이 입양 관련 기록과 입양 정보를 얻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양 시기와 기관에 따라서 입양 기록과 입양 문서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이 기록이 동일한 양식에 맞추어서 쓰여지면 입양인들이 뿌리를 찾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양기관들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불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해외 각국으로 입양이 되니까 당연히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많은 입양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앙불어권입양단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입양기관에 많아져서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해외 입양인 연대 등 많은 입양관련 조직이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기관들의 홍보가 널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기관을 오늘 처음 들어보고, 입양인들을 돕는 서비스를 진행중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어서 더 빨리 알게 되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 감 문 22

<한국의 뿌리를 찾아서>

먼저 한국인으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었다. 개개인의 사연과 생각을 들어보면 매우 사적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인상깊었다. 어릴 때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살게 되며, 언젠가 한번은 '나의 친부모님이 살았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느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불어권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부모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된 기관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지원하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인상깊은 사례는 Jessy Hale의 이야기였다. 미국으로 입양되어 삶의 대부분을 보낸 그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입양된 다른 입양인들과 교류하며 독서클럽에 다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왔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꽤 많이 알고있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직접 한국에 와서 지내보니 미국에서 자라는 것과 많이 달랐다고 한다. 그녀의 말처럼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입양인들과 지내는 것은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지냈던 한국인들과 지내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도 느꼈다.

신기했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1년 동안의 짧은 교환학생의 경험으로 감히 미루어 짐작해보면 확연히 다른 생김새나 한국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 등으로 언제나 지울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나 자신조차도 미국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즈음에도 나오는 완전히 다른 인종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내 자신을 보며 굉장히 위축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은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소 감 문 23

처음에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NCRC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TV에서 입양인들이 본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입양 당시의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의 서류가 어떻게 뚜렷하게 보관되어 있을 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NCRC에서 각종 입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 도움이 가족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NCRC를 몰랐다는 2020년 게더링 참여 입양인의 소감처럼 저 역시 그랬기에 이 곳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에 있는 지 모르는 고국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 입양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에 나오는 입양인들의 인터뷰를 보며 그들이 가진 상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미국처럼 나오는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며 느꼈을 수밖에 없을 외로움 뿐만 아니라, 정작 가족을 찾고 나서도 정식 가족으로 떳떳하게 소개받지 못하는 상처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누구도 공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뿌리 찾기 역시 쉬운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입양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용기와 희망이 된다는 양성일 차관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세계 한인 입양 온라인 게더링과 같은 자리를 통해 모인 입양인들이 서로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자아를 찾는 자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입양홍보회,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영상을 통해 소개된 입양인 인터뷰를 보며 함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입양인들의 힘이 모여서 보다 나은 세상이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한 입양 단체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입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 왔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왔기에 이러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입양인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 감 문 24

예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을때,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가 나의 호스트 가족이었다. 그 가족에는 나와 동갑인 남자애 하나 나보다 어린 여동생들 2이 있었다. 모두 어릴때 입양을 온 한국입양아들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특이한 집이라고 생각했다. 백인부모와 황인 아이 셋이라는 형태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인종이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는집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입양을 했다는 혹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친구도 없었다.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대면을 통한 만남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마 지금쯤이면 2년 정도 지난일이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생각지도 못 했던것들도 생각하게 되었다. 나와 동갑인 남자아이는 친부모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 다만 그곳의 둘째인 여자아이는 자신의 친부모를 궁금해했다.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보고싶을까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고있는것을 보며 그저 그런생각이 들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세명이나 입양하신 부모님에게도 여쭙보았다. 아이가 셋이나 있어서 힘들텐데 왜 나까지 호스트를 하게되었냐고. 그 아이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했다. 같은 또래애를 보여주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말을 듣고 바로 납득이 되었다. 1년보다는 짧게 그곳에 있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조기귀국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을 가기전과 가고난 후 나의 생각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가면 철저히 미국인 일줄알았다. 영상을 보면서 아.. 미국에 가도 다른 나라에 있어도 본인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구나. 나는 무지했고 그래서 무례했다. 그 아이들을 미국인 취급했고 결국에는 다툼도 생겼었다. 그당시나는 심각성을 몰랐다. 영상을 보고나니 다시금 부끄럽다. 그아이들이 입양을 가기까지도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그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다는걸 선생님이 아시면 경을 치시겠지만. 어쩌겠는가. 마음이 시키는일인것을 1시간이 조금넘는 영상은 나의 무지했던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켰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또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실 많은 분들을 존경한다.



소 감 문 25

해외입양이 된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찾길 바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NCRC는 처음 알았습니다. 먼저 NCRC가 하는 일이 다양하고 해외 입양아들의 문서를 소장하고 디지털화 하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찾기에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끔하거나 장학금을 주고 다양한 한국 경험을 해줘서 그들도 한국에 대해 인식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중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상 깊게 봤었던 카라 보스님이 나와서 반갑기도하고본인이 성공담이자 실패담이라고 말하여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찾은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머나먼 한국까지 와 소송까지 하는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분은 본인의 부모님도 궁금하지만 자신의 유전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하셔서 그 부분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머리가 땡 했습니다.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되셨지만 다른 많은 입양아 분들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한인회를 통하여 더 많은 입양아들이 NCRC를 알게 되어 부모님을 찾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아들이 한국에 오고 또 공부도 하고 한국에 살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더욱 놀랐습니다. 많은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어서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입양이 되어 뿌리를 찾는 일을 도와주시는 입양아분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접 단체를 설립도 하시고 비영어권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이렇게 뭉치는 걸 보면 한국에서 자란게 아니여도 그들도 한국인이 맞습니다. 힘들 때 뭉치는 것이야 말로 한국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K 한류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부는 만큼 관심이 없었던 입양아분들도 관심이 많이 생겼을거라 생각하는데, 이 열풍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입양아들이 한국에 관심과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